

주일에배
오전 (1부) 8시 7시30분
오전 (2부) 7시30분
오전 (3부) 10시
오전 (4부) 12시
금요일 (1부) 1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주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30분
오전 (2부) 10시
오전 (3부) 2시
저녁에배 7시30분
수요일에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1 763-9191
주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예수중심교회

2014년 7월 13일 (제750호)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칼럼

깨닫는 것이 복이다

지난주일 나는 인류의 기본이 효도임을 설교했다. 유튜브를 달고 있는 '미친 매느리'에 대한 영상에 이어 '장사익의 꽃구경' 노래까지 성도들에게 보여줌으로 그간 무뎠던 호의를 깨웠었다. 역시 시각적인 감동은 청각적인 감동보다 컸다. 예배 시간 곳곳에서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닦는 것을 보았다.

다음날, 기도원에서 공사를 지휘하고 있는데 인천 장로들과 다른 지역의 권사들이 대거 찾아왔다. 바쁜데 다들 웬일이냐고 했더니 어제 설교를 듣고 많이 회개했다고 하는 것이다. 우선은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고, 그리고 영적 아버지인 목사님에게 그간 효도하지 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것이다. 교회의 장로요 권사라면서 늘 교회가 무엇을 해주기만 바라고 기다렸는데, 이제는 내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까 먼저 생각하겠노라고, 부모님을 위해서도 무엇을 할까 생각하는 자식이 되겠다고, 그리고 이렇게 잘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그들은 말했다. 나는 그들에게 "아니야, 내가 고맙지. 깨달았으니 정말 고맙다."라고 했다. 나는 정말 그들이 고맙았다. 나한테 잘하고, 나를 챙겨서가 아니다. 스승은 제자들이 깨닫고 그것을 바로 행동으로 옮길 때, 보람을 느끼고 모든 수고를 잊는다. 그들의 방문은 30도를 훌쩍 넘는 폭염 속에 한 그릇 얼음냉수와 같았다. 누누이 말하지만, 배움의 끝은 실천이다. 어느 목사님이 새 교회에 부임했는데 매주 똑같은 설교만 했다. 그러자 장로들이 목사님한테 나가라고 했다. 그래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 또 같은 설교를 하는 것이다. 장로들은 이제 마지막이니 그냥 늘어주자 할 때 목사님의 일침이 있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설교를 행동으로 옮길 때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알면 뭐합니까? 행함이 없는데." 이 말에 장로를 비롯한 전 교인이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 실천하지 않는 지식, 행동하지 않는 배움, 그런 쓰레기다.

후진성을 탈피하는 길은 오직 교육이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멕시코(Mexico) 치아파스(Chiapas) 주의 두메산골 야할론(Yajalon)이라는 인디언마을에 갔을 때의 일이다. 해발 2천m가 넘는 산들이 첩첩으로 둘러싸인 이 마을은 가는 길도 험난했지만 찌는 듯한 무더위에 선풍기조차 없는 숙소에서 실신할 듯 악몽 같은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다.

시장에 나가보니 전형적인 멕시코 인디언들의 장이 열리고 있었고, 모든 생활 자재가 느릿느릿한 게 급할 것이 전혀 없어, 마치 21세기의 문명세계와는 전혀 동떨어진 별세계 같았다. 화주로부터 기념비적인 부흥집회를 진행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었지만, 그곳을 떠나며

버텨 버텨 조선팔 이 나라에 처음 선교의 발을 내딛은 미국 선교사들의 심정이 깊은 공감으로 다가왔다. 그들이 이미 수명을 다한 이상주의적 유행의 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채, 변화하는 세계를 조금도 눈치 채지 못하고 있는 조선의 민중들을 바라보며 아득해했을 심정 말이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오늘 뿌리고 간 씨가 과연 발아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지만, 이 대한민국이 선교 100년의 세월 속에 눈부신 고속성장을 이루어낸 오늘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실지 속단하는 것은 운당치 못하며,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다녀간 흔적이 남아 이 땅에 하나님

그 백성들을 향하여 교육의 중요성을 제차 강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노력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리라 확신한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우리가 그동안 선진지식의 수요자에서 공급자의 위치로 상승했다고 해도 우리에게 교육이란 화두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이다. 한 사회를 이루어가는 토대에는 단지 기술적인 지식만이 다는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경제성장에 몰입하며 선진지식의 습득에 열과 성을 다해왔고, 그 눈부신 성과로 인해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다. 즉 먹고 살만하게는 되었는데, 급성장을 하다 보니 고



파라과이 중앙TV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목사님, 재방영을 통해 파라과이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든 하나의 단상이 있다. 정말 아득하다는 생각뿐이었다. 목사님이 집회를 통하여 사자후를 토하며 전한 영적 비밀들, 그리고 세미나를 통하여 비지뎀을 흘리며 가르친 지혜의 말씀들을 그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 가톨릭을 등에 업은 군부세력에 많은 인명이 살상되는 아픈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산 속에 틀어박힌 채,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지키려는 고착된 폐쇄성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이 되고 있었다. 물론 예수 이름 앞에 더러운 귀신이 떠나며 각색 질병이 고침받는 기사와 표적을 직접 목격한 마당에 작은 군열이라도 생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뿌려내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지만, 정말 아득하다는 느낌뿐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야할론의 영상과 오

의 새로운 역사가 써지기를 희망했다. 그렇다. 교육이었다. 이 나라가 오랜 수면에서 깨어나 아시아를 선도하며 세계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어깨를 드밀 수 있게 된 것은 전쟁과 폐허의 고통 속에서도 그들의 빈곤한 유산을 결코 자손들에게까지 물려줄 수는 없다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들의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들은 못 먹고 못 입고 몹시천대를 받들지언정, 자녀들만은 남부럽지 않은 교육을 받게 하여 입신양명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눈물겨운 노력 말이다. 우리는 지난주일 영상에배에서 파라과이(Paraguay) 중앙TV 방송을 통하여 파라과이 국민들에게 교육 제일주의를 거듭 강조하시던 목사님의 음성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또다시 파라과이 땅을 밟으며 여전히 가난과 무지 속에 있는

른 영양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기형적인 군열들이 도처에서 발견되고, 그 부작용으로 많은 후진적 인재(人災)들이 발생하고 있다. 작금의 세월호 사건이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다. 진실로 이 사회가 그런 후진적 의식들을 몰아내고 올바르게 성장해가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기본과 원칙에 바로 설 수 있는 교육이 절실함을 느낀다. 물론 선진국들이 수백 년에 걸쳐 일군 기초를 반세기만에 다 이룬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그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멈추지 말아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무엇보다 교육이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파라과이 집회

일시: 7월 7일(월)~ 19일(토) 장소: 엔까르나سیون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 (잠22:1~6)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지난 5월부터 약 두 달간 기도원 개보수 작업을 했습니다. 그 작업에 많은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직원들이 참여해서 일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작업에 '실명제'를 도입했습니다. 타일을 붙이든, 고구마를 심고 벽돌을 쌓든 '실명제'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무슨 뜻이었을까요? '실명제(實名制)'란 실제 이름을 밝히는 제도입니다. 내 이름을 걸고 최고의 품질, 최고의 서비스, 최고 사양의 것으로 생산하고 판매하고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즉 '내 이름을 걸고 양심껏, 최선을 다해 일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실명제를 시행하셨습니다. 성경 가장 첫 장 첫 절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Made in God'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걸었기에 이 세상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지으셨고, 당신이 보기에도 좋게 만드셨습니다. 사람 역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지으셔서 심히 좋게 만드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이사야서 48장 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은 패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망망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백성이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이스라엘을 멸절시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이름이 중요한가 하면, 이름

시선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라고 지금껏 여겼었는데, 결국 이 꼴이 난 것은 그들이 이미 하나님과 관계없는 철저히 버려진 자들이고, 또한 그들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지도, 구원할 능력도 없는 무능한 신이라고 단정하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마구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공극적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결국 이방인들에게 욕을 먹은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애들이 못된 짓하고, 나쁜 짓하면 다른 사람들이 "저거 뉘 집 자식이야? 저 부모는 애들이 저모양인데 지금 뉘하고 있



총회장 이초석 목사

는 거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더 이상 이방인들이 사이에서 일방이 떨어지는 것도, 욕먹는 것도 참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고 고토로 들어가게 하시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 새 마음과 새 영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하여 당신이 하나님이었음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였습니다.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찌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와 같이니라"(렘36:23). 우리가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시편 23편의 말씀도 봅시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쉼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시23:1~3).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인 다윗을 평탄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 공극적인 목적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곧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오래 전의 일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땅끝예수전도단 회원이 제 설교 비디오 테이프를 하와이에 있는 방송국을 통해 미국전역에 방송하도록 계약을 했는데, 그 회원이 계약한 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고 종적을 감춘 모양입니다. 어느 날, 하와이 방송국 측에서 연락이 와서 저도 그 때야 이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데 방송국 측 말인즉 "목사님이야 법적으로 책임은 없습니

다만, 목사님의 얼굴이 이미 방송을 통

리 한 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노예의 신분이지만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군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창39:9). 그래서 그 이름이 지금까지 길이 남게 된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렇습니다. CCTV도 피할 수 있고, 사람의 눈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꽃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앓고 일어섬을 아시며 멸리셔도 나의 생각을 통찰하시오며 나의 길과 높은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시139:1~4).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했던 다윗이 범한 죄를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저지른 범 죄입니다.

"신기독(慎其獨)", 퇴계 이황이 한 말로, '홀로 있을 때 삼가라'는 뜻입니다. 무슨 이야기로 어느 남자가 소변이 급해서 사망을 둘러본 후에 전봇대에 실례를 하고는 한숨을 돌리는데, 전봇대 위에서 '이놈아 다 봤다.'라고 했는지 모르십니까? 후한(後漢) 때 왕망이라는 사람이 양진을 찾아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받아 달라."며 뇌물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양진이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자네가 아는데 어찌 아는 이가 없단 말인가?"라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습니다. 전도서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니라"(전10:20).

오늘 본문에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 귀하게 여기는 재물보다 명예가 더욱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어둠의 일을 벗어나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빛의 자녀로서 옮겨 행합시다. 할렐루야!

핍박은 기쁨으로 받더라도 인격적인 모욕은 받지 말라

은 곧 명예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명예(名譽)란, 이름 명(名)과 칭찬할 예, 기릴 예(譽)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자랑, 또는 그런 존엄이나 품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아끼시는 이유도 당신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당신의 이름이 곧 하나님 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사42:8).

이것이 잘 나타난 것이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했건만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일삼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파멸시키시고, 그들을 흩어 버리셔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을 바라보는 열국의

해 나갔으니 목사님의 명예를 위해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배상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계약한 것도, 사전에 계약된 것도 몰랐으니 배상할 수 없노라 했는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 제 이름이 실추될 수 있고, 제 명예가 훼손될 것 같아서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유가 타당해서가 아니라 제 이름을 위해서 합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명예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적어도 자기 이름에 먹칠은 안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요?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말입니다.

대개 죄를 짓는 것이나 악을 피하는 일들은 컴컴하고 은밀한 어둠 밤에 이뤄집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 24시간, 평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죄악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안, 오직 보디발의 아내와 자기만 있는데, 까짓 잠자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5,000원)

(060)700-0688

은행 계좌 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요동치는 환율

고수익을 추구하고 있는 외국인 헤지 펀드와 유명 투자은행의 기관 투자자를 통하여 참여하고 있는 신흥시장 특화 사모펀드(Emerging Market Private Equity)들이 최근 한국의 자본시장에 집중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융감독원의 집계에 따르면 2014년 5월 기준으로 외국인의 주식보유금액은 약 437조원이며, 전체 시가총액의 33%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시장 입출(出入)에 대한 제약이 IMF 금융위기 이후 모두 해소되었고,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자본으로 시장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외국인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프로그램은 국내시장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과 연계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일부 우량주에 집중하여 투자하기 때문에 어닝쇼크(시장의 예상치 보다 낮은 실적발표)에 대한 위험 측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따라서 다른 신흥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셋째, 단기 투자자들이 매도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제 3의 미국, 유럽계 투자자뿐만 아니라 중동 및 아시아권의 국부펀드, 무엇보다 하락장에서 매도물량을 소화해주는 국내의 기관과 절대적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이 있어 자산유동화에 제약이 없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하 환율)이 2008년 4월 이래 다시 세 자리 수에 근접하고 있는데, 표면적인 원인은 2012년 3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경상수지의 흑자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 경제대국들이 자국 경제의 부양을 위해 유동성 공급규모를 확장시키며 자국 통화의 상대적인 보유가치를 하락시키자 (양적완화) 상기의 강점을 갖고 있는 한국 시장에 외화가 물리고 있는 것이 더 타당성 있는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은 '원화가 8%까지 저평가됐다'고 주장하면서 추가하락의 여력에 대한 의견을 표하였고, 미국 재무부도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을 비난하면서 경고성의의를 제기하고 있어 당분간 원화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미국 연방은행의 테이퍼링(양적완화의 축소)이 본격화되고 개선된 경제지표가 발표되면, 외국자본은 다시 선진국으로 선회할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차원에서는 원화약세로 돌아설 수 있는 개연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위험에 노출된 중소기업의 경우, 박스권내에서만 손실보전이 되는 환율보전상품이나 외화표시 통화대출 등은 지양하고 원가절감에 매진해야 할 따라 생각합니다.

성도의 입장에서 보는 총화장 목사님의 목회현장은 어떤 자본시장보다 불확실성이 높고 변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달러화의 수급은 시장이 아니라 미국의 연방은행(FRB)이 결정하는 것처럼, 의사결정자인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30년의 질풍노도를 헤쳐오신 그분의 경륜과 지혜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임윤석

진선미(眞善美)

아름답고 싶다, 멋지고 싶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이와 무관하게 누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런 일이다. 또 아름다운 사람, 예쁜 사람, 멋진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즐겁다. 연예인 신드롬이 그런데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요즘 우스갯말로, '어머니 날 낳으시고, 성형외과가 날 기르시나'라는 말이 있다. 성형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듯한 세상, 성형왕국인 대한민국에서나 나올 법한 말이다.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해상 효지시야(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라 했다. 몸과 머리, 피부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는 말이다. 이 말은 지금도 타당하나 분명 세상은 변했다. 그래서 성형의 찬반을 논하지는 않겠다. 다만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외모에 반해 낙후되어 가고, 탁해져가고 있는 내면도 좀 신경을 쓰자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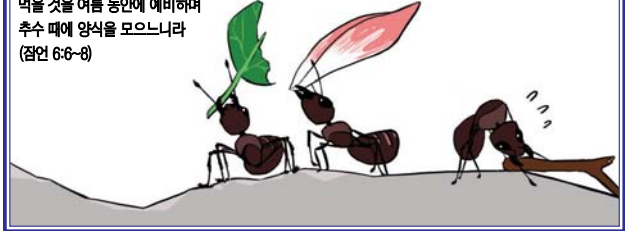
누군가 기쁨은 눈에 나타나고, 생활은 얼굴에 나타나며, 교양은 목소리에 나타나고, 마음에 숨겨둔 감정은 입가에 나타나고, 나이와 슬픔은 뒷모습에 나타난다고 했다. 외모는 내면의 것으로 결정된다는 말이다.

베드로 사도는 말한다. "너희 회당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벧전3:3-4),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벧후1:5-7).

내 속에 지식으로 화장을 하고, 사랑의 웃을 입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식을 하면 외모에서도 아름다움과 지적인 면이 드러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진(眞), 선(善), 미(美)다.

예수중심편집실

게으른 자여
게미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미는 두렵도 없고 간악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며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잠언 6:6-8)



::저 높은 곳을 향하여 ::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 문득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지?" 라고 소경이나 물어볼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때가 있다. 이쯤 되면 여러고성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막10장) 라고 외치던 소경 바디매오와 별로 다를 바 없는 모습이다.

바로 겠지 못한다고 나귀에게 화를 내며 채찍질해왔던 발람은 영의 눈이 열리고 나서야 비로소 칼을 빼들고 길목을 막아선 어호와의 사자를 볼 수 있었다(민22장). 산에 가득한 불발과 불병거를 보았기에 열리시는 예외한 아람군대를 보고도 답대했다(왕하6장). 담대하게 순교한 스테반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기 때문이었고,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부르심의 사명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아가 그날에 예비된 상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온전히 승리하려면 예수님께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기를, 밝히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우리도 예수님이 여러고성을 지나신다는 것을 알고 길목에 앉아 있던 바디매오처럼, 예수님이 머무시는 자리로 나아가자.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거룩한 자리로, 각자 다른 모습일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머무셨던 자리로, 낮은 자리로... 전심을 다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

자. 그리고 바디매오처럼 간절히 예수님께 외쳐 구하라.

어떤 환난과 곤고와 기근도, 어떤 사망을 위협하는 위험이나 칼도 나와 내 이웃을 해치는 흥기가 아니고 살리는 무기가 되도록 영의 눈이 열리기를 구하자. 문제만을 바라보는 시각이 교정되어 문제너머를 볼 수 있게 되고 열린 눈의 지경이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하늘 보좌까지 볼 수 있기를 구하자. 그리하면 인생을 위협하는 문제들은 더 이상 흥기가 아니고 마귀를 대적하고 나와 내 이웃과 관계된 곳을 살리는 무기가 되어 선한 열매들이 가득 맺어지게 될 것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서연 전도사

ohzion1004@daum.net



귀를 기울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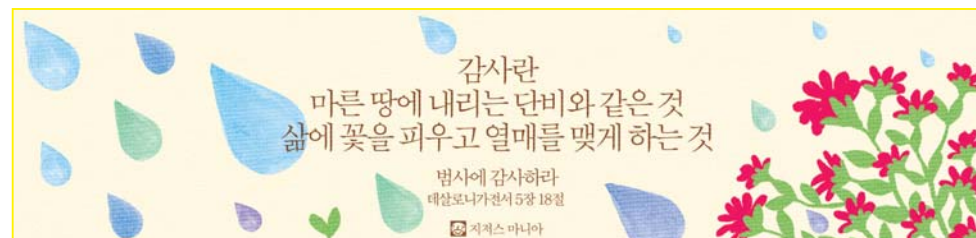
19세기 초 프랑스에서 태어난 루이 브라유(Louis Braille)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네 살 때 공구를 갖고 장난을 치다가 눈이 찔려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시각 장애인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위한 점자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거의 점자책이 없었습니다. 이런 시대였으니까요. 그러나 맹인학교에 들어간 어린 브라유는 자신과 같은 시각 장애인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쉬운 점자체계를 만들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고, 그 이후로 숏한 밤을 새우며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실용성이 떨어지는 기존의 점자체계를 고수하던 사회계 편견에도 굴하지 않았던 브라유는 결국 16살의 나이에 오늘날의 점자체계를 발명해 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발명한 점자체계를 가지고 맹인학교의 교사로 헌신하는 삶을 살다가 43세의 나이에 폐렴과 과로가 겹쳐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비록 맹인이었고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결코 불행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했고,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니까요. 그런 그의 노력과 헌신은 수많은 시각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빛을 잃은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고 또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 이웃을 살리며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가치 있는 일, 여러분은 찾으셨습니까?

신혁주 전도사

blessedmb@naver.com



::내가 매일 기쁘게::

::참된 깨달음::

미운 사람을 거울삼자

“홍보기가 싫다마는 저 부인의 거동보소 / 시집간 지 석 달 만에 시집살이 심하고 / 천정에 편지하여 시집 흥을 잡아내네.” 우리의 고전 문학 작품인 ‘용부가(庸婦歌)’라는 노래이다. 시집간 아내의 바르지 못한 거동들을 열거하고, 그 여인처럼만 살지 않으면 된다는 결론을 내리는 작품으로, 조선 후기 우리 선조들의 재치와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재미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의 교훈은 바로 ‘타산 지석(他山之石)’, 곧 상대방의 얼굴에 묻은 얼룩을 보고 내 얼굴을 닦을 수 있는 지혜와 현명함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타인에게 손가락질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바로 서야 한다. 내가 몸담고 있는 학교에도 그런 인간이 한 명 있다. 그녀는 한마디로 쫓대 없는 인간이다. 주위 사람들의 취미활동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마치 자신이 그 분야의 권위자인 양 잘난 체한다. 그 친구의 쫓대 없음은 끝이 없어서 후배의 논문 주제를 도우하는 데에도 아무 거리낌이 없다.

그 친구의 결정적인 특징은 남의 말하기를 즐겨한다는 점이다. 주변사람들의 최근 근황부터 친구들이 사적으로 털어놓은 고민들까지 가감 없이 여기저기 말을 흘리고 다닌다. 그래서 그녀의 사교적인 언행에 혹했던 학우들이 서서히 그녀의 진면목을 알아채면서 이제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나 역시, 그녀의 화사한 얼굴에 진심으로 다가갔다가 점차 멀리하고 있다. 그런 그녀를 지켜보면서 깨달은 점이 있었다. 그녀의 하세 가득한 SNS 포스팅을 보고 나를 돌아보았다. 이런 저런 이론서를 읽는다면 소란스러운 그녀를 보면서, 내가 지금 하는 연구에는 거품이 끼지 않았는지 점검해보았다. 타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 없이 내뱉는 그녀를 보면서, 나는 무심결에 남의 말을 하지 않도록 일에 재갈을 물었다. 어느 순간, 내가 그녀의 행동거지들을 절대로 따라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부정적이건 긍정적이건 주변의 인물들

보고 달라지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가 성경 속의 인물인 요셉이나 야곱, 한나나 에스더를 모델 삼아 그들의 모습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어리석은 삼손이나 성급했던 일다를 거울삼아 좀 더 진중한 삶의 태도를 가지려고 기도하는 것 모두 그들을 모델 삼아 나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허세 가득하고 말 많은 그녀를 보고 나를 돌아보는 것도 그녀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와 같은 일들은 누구에게나 비밀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 학교나 직장, 동호회 모임 등, 여러 곳에서 우리는 ‘용부’ 같은 사람들을 마주치곤 한다. 그들의 행실에 손가락질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로 만들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더 아름답고 존경받을 만한 크리스천이 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전훈지

ppjee@hanmail.net

진짜로 나를 믿느냐?

어느 남자가 남편처럼 가장자리에서 사진을 찍다가 그만 발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벼랑 아래로 굴렀습니다. 굴러 떨어지는 와중에 다행히 가까스로 튀어나온 돌부리를 붙잡았습니다. 안간힘을 다해서 돌부리를 붙잡고 있는 그 남자는 절규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아무도 없어요? 누가 날 좀 구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 때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얘야,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아! 하나님, 저 좀 빨리 구해주세요. 팔에 힘이 다 빠져갑니다.” “그래, 당연히 너를 구해줘야지.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다. 너는 나를 믿느냐?” “믿다마도요. 안 믿으면 매 주 교회에 갔겠어요? 그러니 말씀 그만 하시고 저 좀 빨리 구해주세요.” 주님은 다시 그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나를 믿느냐?” “진짜로 믿는다니까요.” “그래? 그렇다면 그 돌에서 손을 떼어라.” 그는 한참 동안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다시 이렇게 절규했다. “거기 위에 다른 누구 없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입니다(롬4:17). 이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당신은 돌부리에서 손을 뗄 수 있습니까? 그 돌부리는 당신이 자랑하는 알량한 세상 지식이요, 지혜입니다. 당신이 묵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돈이요, 인맥이요, 명예입니다. 그것을 잡고 있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돌부리를 놓으십시오.

Good News

만우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영국의 천체 과학자 뉴턴은 다방면에서 괄목할만한 수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인생 말년에 자신의 업적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나 나 자신은 마치 바닷가에서 놀다가 부드러운 잔돌이나 아름다운 조개껍질을 발견한 어린아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는 아직도 충분히 알아내지 못한 진리라는 큰 바다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뿐입니다.” 뉴턴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진리의 근원이 되심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

다. 세상에서 찬사를 받고 있는 자신의 위대한 업적이 지극히 미미한 부분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남기고 간 흔적들을 살펴보면 과학적인 진리를 탐구하는데 바친 시간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묵상하고 알아가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바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 뉴턴에게 기억상실증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나이와 이름조차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뉴턴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두 가지뿐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내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두 가지면 충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롬3:10)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함과 공흠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롬10:13). 다른 방법, 다른 길은 결코 없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요14:6).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예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1:12). 이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고 죽은 후에 가는 곳도 달라집니다. 이것이 참 복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나도 건강할 수 있다::

우울증을 극복하려면

‘우울증’이란 ‘기분’에 장애가 생기는 것을 말하며, 우울은 중요한 것을 상실하였을 경우 느끼는 감정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의 사망, 자녀의 사망, 사회적 지위의 박탈, 이혼 등으로 시련을 겪고 희망을 잃었을 경우입니다. 초반에는 슬픔을 느끼나 슬픔이 장기화되면서 무기력감을 갖게 되며 물에 젖은 솜처럼 처지게 됩니다. 우울증의 특징은 하루 종일 우울한 상태가 지속되어 주변에 대한 관심과 감정이 감소됩니다. 1개월 이내의 체중감소나 증가, 불면증이나 과수면, 안절부절못함과 무기력감, 매일 피로감을 느끼거나 에너지 상실, 부적절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이나 자살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우울증은 일반적으로 ‘마음의 감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만큼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라는 말입니다. 실제 성인

중 10%가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여성의 경우 다섯 명 중 한 명이 우울증에 걸릴 수 있을 정도로 흔하다 흔한 병입니다. 우울증은 우울하다는 감정의 장애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합병, 산후 우울증, 고3병, 대4병, 주부우울증, 빈 동지 증후군, 노년기 우울증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우울증은 적절한 치료만 받으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우울증의 치료방법은 약물치료, 심리치료, 집단정신치료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울증을 극복하려면 첫째, 말없이 참지 않아야 합니다. 우울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위해 해야 하는 첫째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최대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둘째,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활동을 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갖고 운동을 하면 정서적인 저항력도 강해질 것입니다. 셋째, 오랜 시간 집에 혼자 있는 것을 피합니다. 혼자 있게 되면 더 우울해집니다. 넷째, 즐거운 생각을 합니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없애려는 노력과 더불어 자신이 할 수 있는 즐거운 생각을 하도록 합니다. 우울증의 치료에는 가족과 주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진정한 도움은 이해와 인내와 공감과 격려입니다. 또 대화에 참여시키고 주의 깊게 경청해 줍니다. 권유하되 강요하지 말고,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격려하고 도와주면, 분명히 좋아질 것입니다.

Dr. 조희경

pearl9230@naver.com

